

“회 거듭할수록 충격 전개…무조건 시즌3 가야죠”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 시청률 4% 시작해 9회만에 11% 돌파 임성한 표 막장 넷플릭스서도 통해…시즌 3 연말쯤 조율 전망

TV조선 주말극 ‘결혼작사 이혼작곡’ (이하 ‘결사곡’)의 시청률 추이는 요즘 안방극장 시청 패턴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시즌1 6~9%대(닐슨코리아 유료가구)를 유지했던 이 작품은 시즌2에서 4%대로 시작해 차근차근 오르더니 9회에서 11%를 돌파했다.

“4회까지는 본다”는 말은 이미 옛말, 1회에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하면 급격한 시청률 반등은 사실상 어려운 게 요즘 드라마 시장이지만 ‘결사곡’은 해냈다. 심지어 넷플릭스에서도 좋은 순위권 내 진입해 있다.

연출을 맡은 유정준 PD는 최근 광화문에서 만나 “그게 임성한 작가의 저력”이라고 말했다.

“시즌1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서사가 시즌2에서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사가 급격하게 점프할 때도 있고, 알쏭달쏭한 장면들도 있지만 임작가께서 뛰어난 안금 조절을 통해 시청자들을 위락시켜주고 있죠. 연출자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니다. 시즌2가 6회 남았는데 시청률이 13%대까지는 더 오를 거로 생각해요. 몰아칠 일단 남았으



유정준 PD.

니. (웃음)”

마지막까지 불륜을 숨겨왔던 신유신(이태근 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아내 사피영(박주미), 그리고 어머니 김동미(김보연)가 분노하는 모습에 시청률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탔다. 아내보다 흥분한 엄마의 아들 내연녀 ‘머리채 잡기’는 하이라이트였다.

유 PD는 “김보연 씨는 확실히 캐릭터를 갖고 놀 줄 안다. 스킵과 해석력이 뛰어나고 캐릭터를 체화한”며 “일반 연속극에서 머리채 잡는 장면의 주체는 아내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 역할을 동미가 대신 함으로써 독창적이었다”고 말했다.

김보연은 이외에도 시즌1의 극장에서의 반전 표정, 시즌2의 남편 혼령(노주현)에게 밥을 차려주는 장면, 천지 신령을 향해 “젊은 남자와 살 비비며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장면 등 주요 인물들을 인상적으로 소화해 화제가 됐다.

유 PD는 ‘내연녀 3인방’ 중 가장 주목받은 이민영에 대해선 “송원의 경우 판사현과의 스토리가 개연성도 충분했고 감정적으로 입입하기에 부대낌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내 3인방” 중에서는 박주미가 인상 깊었다면서 “주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인내해야 했다. 그걸 잘해냈다. 엄마가 죽는 장면 등에서는 장시간 촬영

에도 엄청난 몰입력을 보여줬고 기존의 단아한 이미지도 잘 썼다”고 격려했다.

유 PD는 “연출자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지만, 이 작품은 시즌3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자신했다.

“시즌2는 시즌3가 무조건 금요일 결말이에요. 이야기는 충분하죠. 배우들도 많고, 그동안 시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안 나오니 인물들도 많으니까요. 연말쯤이면 조율되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연합뉴스



유재석, 유희열 품으로
안테나와 전속계약 체결

‘국민 MC’ 유재석(사진)이 결국 유희열이 이끄는 안테나에 새 등지를 들었다.

안테나는 14일 유재석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테나는 “유재석 씨는 명실상부한 국민 MC, 국민 개그맨으로서 콘텐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열정을 바탕으로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영역을 넓혀왔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안테나가 지닌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도 유재석 씨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에 유재석도 “오랫동안 알아 온 친한 동료들과 함께하게 되어 설레고 기쁘다. 함께 펼쳐나갈 재미있는 일들을 기대해 달라”고 화답했다.

안테나에는 유희열 외에 정재형, 토이, 루시드폴, 페퍼톤스, 정승환, 권진아, 샘김, 적재 등 여러 뮤지션이 소속돼 있지만 음악 분야 외 아티스트가 합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테나는 유재석을 영입한 데 대해 재능 있는 좋은 사람들과 틀어쥘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도전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안테나는 “유재석의 합류와 함께 아티스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기획 등에 참여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 음악과 예능 양측 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재석의 ‘몸값’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소 100억 원, 많게는 200억 원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6년 몸값았던 FNC엔터테인먼트와의 과거 계약금과, 유재석이 최근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동 반경을 넓힌 점을 고려한 수치다.

유재석은 1991년 제1회 KBS 대학개그제로 데뷔했으며, 현재 MBC TV ‘놀면 뭐하니?’, SBS TV ‘런닝맨’,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식스센스2’ 등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한결같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안테나는 유재석의 합류와 함께 아티스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기획 등에 참여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 음악과 예능 양측 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재석의 ‘몸값’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소 100억 원, 많게는 200억 원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6년 몸값았던 FNC엔터테인먼트와의 과거 계약금과, 유재석이 최근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동 반경을 넓힌 점을 고려한 수치다.

유재석은 1991년 제1회 KBS 대학개그제로 데뷔했으며, 현재 MBC TV ‘놀면 뭐하니?’, SBS TV ‘런닝맨’,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식스센스2’ 등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한결같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BTS, 미국 음반시장도 점령…CD판매 1위

57만 3000장 판매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CD 음반을 가장 많이 판 아티스트로 집계됐다.

빌보드가 13일(현지시간) 보도한 MRC 데이터의 올해 상반기(1월 1일~7월 1일) 미국 음악시장 통계에 따르면 BTS는 이 기간 미국에서 전체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57만3000장의 CD 판매고를 올렸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41만4000장으로 2위를 기록했다.

CD와 바이닐(LP), 카세트테이프 등을 모두 합친 실물 앨범 판매량 순위에서는 스위프트가 총 74만 6000장으로 1위, BTS가 57만3000장으로 2위였다. BTS의 실물 앨범 판매량은 전량 CD에서 나왔다.

실물 음반에 디지털 앨범 판매량을 더한 총 판매량도 스위프트가 1위, BTS가 2위를 차지했다.

BTS의 성과는 지난해 11월 미니앨범 ‘BE’ 발매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신보 CD 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주목할 만하다. 히트곡 ‘버터’는 디지털 싱글로 먼저 발표했으며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가 수록된 실물 CD는 이달 9일 나왔다.

상반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실물 앨범 10위권에 BTS 앨범 두 장이 들었다.

‘BE’가 6위(12만5000장)를 기록했고, 지난해 2월 발매된 정규 4집 ‘MAP OF THE SOUL: 7’도 10만5000장이 팔리며 10위에 올랐다.

아울러 K팝 그룹 NCT의 ‘레조넌스 파트1’이 10만 6000장으로 8위를 기록했다.

BTS는 음원 판매에서도 독보적인 실적을 올렸다. 디지털 음원 판매량 1위가 ‘버터’ (84만1000건), 2위가 지난해 발매된 ‘다이너마이트’ (28만3000건)로 1·2위를 모두 BTS가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디지털 음원 판매 총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 감소했다. 그러나 BTS는 막강한 팬덤을 계속 쌓아나가며 팬덤의 구매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음원 판매량에서 타 가수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노래는 ‘괴물 신예’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브스 라이선스’였다. 이 노래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8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음반 판매량에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스트리밍 환산치 등을 합산해 가장 많이 소비된 앨범 순위를 낸 결과 1위는 컨트리 가수 모건 윌렌의 ‘데인저러스: 더 더블 앨범’이 차지했다.

윌렌은 흑인에게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 앨범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에서 10주 연속 정상상을 차지하는 등 인기를 이어나갔다.

한편 MRC 데이터가 상반기 집계를 시작한 1991년 이래 사상 처음으로 바이닐 앨범 판매량(1920만 장)이 CD(1890만 장)를 앞지르는 등 미국에서도 바이닐 열풍이 거세다.

바이닐 앨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작은 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터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출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한국기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힐스팀힐링센터점질방

광주북구동림동333, 핸드폰기계 2층 만성통증, 요통, 오십견, 수족냉증, 수술후유증, 관절염 각종염, 산후통, 손발저림, 산후조리, 다이어트 피부미용, 아토피, 비염, 불면증, 피로회복, 생리통 ☎ 062)413-3507, 010-4630-3507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해미패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계량한복·무대이상·작품한복전문 ☎ 062)224-5958, 010-6777-5958

(주)K&J컴퍼니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제테크, 신재생에너지제테크 원금보장, 안정된 높은 수익 ☎ 1899-1972

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0 (두암동 946-7) ☎ 062)263-2223, 010-3819-6595

써니헤어샵가발

나주시 성북동 4거리삼성디지털프라자 옆 최신타피커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펌 전문 ☎ 010-3996-0489

동태랑대구랑전문점

나주시 남내1길 4-1 각종 모임 환영 ☎ 010-2127-0888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리락)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대신청소전문기업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 ☎ 062)526-1133, 010-6522-1524

첨단돌솥감자탕산포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 ☎ 061)332-6108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새희망직업소개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남·여 인력 한시모집 ☎ 062)531-5511, 010-6522-1524

행정법전문행정사 행정법인 맥 행정법률사무소

북구 유동 41-6번지 행정사 김유승 ☎ 062)523-5885, 010-5665-0150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